



금속민투위

민주노조 재건!
노동탄압 분쇄!
현장권력 쟁취!
20년 임투 승리!
고용안정 쟁취!

■ 발행인 : 의장 김 태 곤 ■ 발행처 : 선전실(29-20호) ■ 게시기간 : 12월 31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 대표 남 정 일

밝아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복 많이 쟁취하세요!

노사 합작의 품질 책임론, 코로나19 핑계, 임금동결, 사측의 현장침탈 등 조합원들의 우려 속에 굴욕의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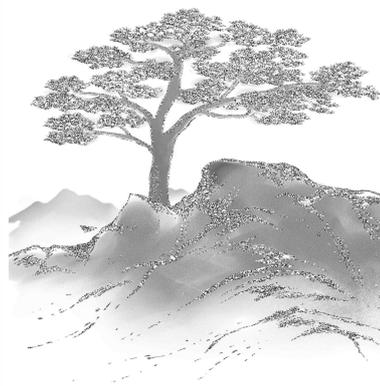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역할은 조합원 편에 서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 시켜 나가는 것이다. 8대 집행부는 1년차 집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올 한해 조합원 편보다는 사측 편에 가까운 행보로 노동조합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집행 2년차를 준비하길 바란다.

조합원의 엄명!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8대 집행부는 20년 임협을 앞두고 난데없이 년·월차제도를 개선해 기본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기본급 강화를 위한 8대 집행부의 년·월차제도 개선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은 “내 월차 손대지 말라”라는 소리가 절대다수였고 이에 이상수 지부장은 결국 “20년에는 논의하지 않고 21년에 다시 거론”하겠다고 선언해 물밑에 잠적해 있다.

민주노조 재건 금속민투위는 15대 대표 및 대의원으로 당선된 동지들과 함께 ‘사측의 현장 침탈 분쇄! 년·월차제도 사수! 단체교섭 승리!’ 를 위해 최선봉에서 투쟁해 반드시 조합원의 엄명을 완수하여 조합원 동지들께 주신 믿음과 지지에 기필코 보답토록 할 것이다.



저물어가는 경자년 마무리 잘 하시고
신축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민주노조 재건 금속민투위 조직원일동 -